

천만그루 가든시티 조성 머리 맞대다

전주시, 조경전문가·시민들과 워크숍

나무심기 추진방향·정책 상호 토론 이어

전주시가 천만그루 가든시티 조성을 위해 조경전문가와 도시계획 전문가,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다.

천만그루 가든시티 조성은 전주를 미세먼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시원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첫 결재사업이다.

시는 지난 7일과 8일 1박 2일 동안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시 일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최현현 씨토포스 대표 등 조경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

가, 정원 및 도시농업 분야 전문가, 김 해설가, 화훼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천만그루 가든시티 전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천만그루 가든시티 전주 구현을 위한 추진방향과 향후 추진될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양묘장과 텃밭종길 등 전주시 곳곳의 사업현장을 방문해

향후 무엇을 담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저녁에는 팔복예술공장에서 천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추진방향과 정책에 대한 상호 토론을 이어갔다.

시는 향후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천만그루 가든시티 전주'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내년도 본예산 확보를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동시에, 천만그루 가든시티 전주 추진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과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 발굴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가든시티

를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꽃도 많이 피우고 숲을 아름답게 해서 보기 좋은 도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물의 다양성을 복원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도시로 가는 게 가장 큰 목표중의 하나"라며 "미세먼지 걱정 없이 숨 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천만그루 가든시티 조성을 위해 전문가 그룹과 시민회, 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17일에는 '천만그루 가든시티 전주'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제안된 시민의견은 향후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비빔밥축제 활용

관광객 유치 나섰다

시, 전국 축제 등 찾아 홍보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시가 국가대표 미식축제인 전주비빔밥축제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전주시와 전주비빔밥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선거현)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주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8 전주비빔밥축제'에 국내 관광객들을 대거 유치하기 위해 전국에서 펼쳐지는 축제와 관광명소,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앞서, 시와 축제 조직위는 폭염이 절정이던 지난달부터 축제 현장홍보팀을 꾸려 전주한옥마을과 전주가막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전주대학교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비빔밥축제 홍보를 해왔다.

홍보팀 참가자는 "폭염 속에서 홍보하느라 힘들었지만, 전주비빔밥과 전주비빔밥축제가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세워주시는 분들 덕분에 많은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도 전주비빔밥축제만의 장점을 널리 알려 보다 많은 관광객이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효철 기자

예수병원, 캄보디아 의료봉사

예수병원 직원과 가족들은 뜨거운 여름 날씨였던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캄보디아로 해외 단기 의료봉사를 다녀왔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캄보디아 단기 의료봉사팀은 예수병원 직원과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씨엠립(Siem Reap)에서 버스로 5시간정도 떨어진 캄보디아 북동쪽에 위치한 스텡프랭(Stung Treng) 주(州) 스텡프랭 지역에서 의료봉사를 펼쳤다.

예수병원 의료봉사팀은 스텡프랭 정북기관에 의료봉사 허가를 얻어 김영철 선교사가 세운 스텡프랭 학교 및 인근 불교사찰에서 5차례 의료봉사를 했으며 이 기간 동안 총 852명의 현지 주민들과 아이들을 진료했다. /김영태 기자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예수병원서 현장간담회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과 전주고용센터(소장 양도식)은 지난 5일 예수병원(병원장 권창영) 경영진과 근로자들을 만나 노동현장의 실태를 파악,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예수병원을 찾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의료계의 상황과 병원의 현실에 대해 의견을 수렴받았으며 특히 최저임금으로 인해 인건비 전반적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압박 기업지원에 대한 형평성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특별임종 등에 따른 11시간 휴게시간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와 국제로타리3670지구 전주시역 28개 클럽은 지난 7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이군형 국제로타리3670지구 총재, 염상섭 로타리 재전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2019년도 천년전주 결연봉사 협약식을 열었다.

민·관 협력 전주시민 행복지수 'UP'

시-국제로타리3670지구 지역 28개 클럽, 결연봉사 협약

전주시와 국제로타리3670지구는 민관 협력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를 통해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함께 만들기로 했다.

전주시와 국제로타리3670지구 전주시역 28개 클럽은 지난 7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이군형 국제로타리3670지구 총재, 염상섭 로타리 재전협의회 의장 등 협약대상자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2019년도 천년전주 결연봉사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은 시와 국제로타리3670지구가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민간단체의 우수한 인력과 예산을 시정에 접목해 공평하고 누수 없는 봉사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2012년 7월 체결한 협약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이군형 국제로타리 3670지구 총재는 전주시역 28개클럽 회장들과 올 한해 1억2000만원 상당을 소외계층과 불우이웃들을 위해 나누겠다는 천년전주 결연봉사 예정액을 전달했다.

또한, 전주시와 국제로타리3670지구 간 협약과 함께 전주시역 28개 로타리클럽과 전주시 35개 동간 결연 협약도 함께 이뤄졌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연1회 이상의 협력사업을 시행

하고 상호 협조체계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앞서, 국제로타리 3670지구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1억2000여 만원을 기부하고 시와 함께 민·관 협력의 봉사사업을 전개하는 등 시민의 도시 전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왔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국제로타리3670지구의 우수한 인력과 예산, 전주시의 행정지원으로 민간영역의 봉사활동 확대, 복지사각지대 수혜대상자 발굴 및 복지혜택 확대, 자원봉사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로타리와 전주시는 소통과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해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풀무원 계열사 초코케이크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 급증

의심증세만 817명... 도내 납품학교 16곳 모두 발생

풀무원 계열사의 급식 케이크가 납품된 전북지역의 모든 학교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케이크는 익산 10곳을 비롯해 전주, 완주, 장수, 무주, 김제 지역 등 총 16곳의 학교에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817명이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34명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제품을 먹은 학생들은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최근 풀무원 푸드머스로부터 '우리밀 초코블라썸 케이크'를 공급받아 급식으로 제공했다. /뉴시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케이크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살모넬라균은 보통 잠복기가 72시간인 만큼 9일까지 피해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뉴시스

전북경찰 여성청소년경찰

젠더감수성·성인지 향상 교육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전북경찰청 별관교육센터에서 여성청소년업무 수행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젠더감수성 및 성인지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젠더란, '사회학적 의미의 성(性)'으로서 대등한 남녀 관계를 내포하는 개념을 말하며, 성인지 관점이란 특정 성(性)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관점을 말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그동안 경찰 업무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피해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사례들을 다루었으며,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찰관 개개인의 성평등 감수성이 먼저 향상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강사로 나선 양동욱 한국양성평등진흥원 강사는 "여성 대상 폭력을 다루는 경찰이 먼저 성차별적 고정관념 탈피와 함께 피해자 중심의 관점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즐기는 체험학습 시민과 함께

전주평생학습한마당 성료

전주시민과 함께 즐기는 체험형 학습축제인 '제13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주지역 평생학습 관련단체와 일반시민들의 참여 속에 한 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펼쳐졌다.

'평생학습, 일상의 선택'을 주제로 진행된 올해 평생학습한마당에는 평생학습 관련 기관과 단체, 동아리, 공동체 등 99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아동·청소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세대가 함께 어울려 평생학습의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이번 평생학습한마당에서는 전주시민들이 그동안 평생학습을 통해 갖고 닦은 문화와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 성과를 소개되고, 수많은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먼저, 노인복지관연합회 등 24개 기관들은 '배움의 일상'을 테마로 자체 홍보부스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 등 8개 기관과 공동체에서는 '나눔의 기쁨'을 테마로, 마음이 맞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 활동중인 41개 동아리는 '함께하는 즐거움'을 테마로 시민들을 만났다.

이와 함께, 행사장 첫머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일상으로 초대' 주제관에서는 전주시역 5개 문화의집에서 만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다.

또, 7개 고등학교의 청소년 밴드 동아리가 모여 청소년 락 페스티

발을 통해 꿈과 끼를 발산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체험과는 달리 유료로 진행됐지만 특별하고 신선한 체험전도 별도로 마련돼 행사의 질을 한층 높였으며, 평생학습 강사들의 전시와 공연, 체험체와 일반시민들의 참여 속에 한 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펼쳐졌다.

'평생학습, 일상의 선택'을 주제로 진행된 올해 평생학습한마당에는 평생학습 관련 기관과 단체, 동아리, 공동체 등 99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아동·청소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세대가 함께 어울려 평생학습의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이번 평생학습한마당에서는 전주시민들이 그동안 평생학습을 통해 갖고 닦은 문화와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 성과를 소개되고, 수많은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먼저, 노인복지관연합회 등 24개 기관들은 '배움의 일상'을 테마로 자체 홍보부스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 등 8개 기관과 공동체에서는 '나눔의 기쁨'을 테마로, 마음이 맞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 활동중인 41개 동아리는 '함께하는 즐거움'을 테마로 시민들을 만났다.

이와 함께, 행사장 첫머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일상으로 초대' 주제관에서는 전주시역 5개 문화의집에서 만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다. 또, 7개 고등학교의 청소년 밴드 동아리가 모여 청소년 락 페스티발을 통해 꿈과 끼를 발산했다. /송효철 기자

한옥마을 문화시설·원주민·상인 힘 모아

소리문화관 등서 상인단체 후원 문화공연 초청 관람행사 열려

전주한옥마을을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전주시와 전주한옥마을 문화시설, 원주민, 상인들이 힘을 모았다.

전주시에 따르면, 한옥마을 문화시설이 주관하고 한옥마을 상인단체가 후원한 '한옥마을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공연 초청 관람행사'가 8일과 9일 이틀간 거주민 130명을 대상으로 전주한벽문화관과 전주소리문화관에서 개최됐다.

시는 이날, 오랜 기간 전주한옥마을에 거주해왔지만 그간 한옥마을에서

펼쳐지는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이웃 주민들을 초청해 전주한옥마을의 대표 마당창극인 '번사포 생일잔치'와 전통연희극인 '히하남락'을 무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한옥마을을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이자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민과 상인, 문화시설, 행정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뜻있는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7일 전주시 생활폐기물 및 하수처리 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시설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서 현장활동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고미희 의원)가 지난 7일 전주시 생활폐기물 및 하수처리 시설 등에 현장방문활동을 나섰다.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복지환경위원회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전주권 조각작업센터,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청소차량 차고지, 하수처리장, 팔복정수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시설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